

예술로(路) 사례집

국립생태원

(주)헤리티지락

당진3동주민자치회

수자원환경산업진흥(금강문화관)

한국민속극박물관

STREET NO

I	2023 충남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 사업 소개	06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 사업 주체	07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 사업 운영 현황	08
II	2023 충남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 협업활동	
	(주)헤리티지락	12
	국립생태원	18
	수자원환경산업진흥(금강문화관)	26
	당진3동주민자치회	34
	한국민속극박물관	40

예술로 路 사례집

I

2023 충남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

사업 소개

사업 주체

사업 운영 현황

사업소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는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 영역을 개발하고 기업, 기관, 마을 등 사회와 협업하여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적 기획, 협업구조 제시를 통해 문화, 산업, 경제에서 예술인의 가치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는 올해 재단 최초 민·관 협력을 통한 충남예술인파견지원 사업-예술로(路)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업 구조로 운영된 예술로(路) 사업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 및 기업·기관·마을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기업·기관과 리더·참여예술인 매칭을 지원하였습니다.



참여주체



사업 운영 현황

1월
JAN

- 2023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선정

3월
MAR

- 참여 기업 기관 마을 모집 : 23. 3. 14.(화) ~ 4. 2.(일)
* 5개 기관 선정

4월
APR

- 리더 및 참여예술인 모집 : 23. 4. 11.(화) ~ 27.(목)

5월
MAY

- 리더 및 참여예술인 연장 모집 : 23. 5. 16.(화) ~ 23.(화)
* 리더 5명, 참여예술인 4명 선정
- 예술로 오리엔테이션 개최 : 23. 5. 16.(화)
* 리더 및 참여예술인 23명 / 기업·기관 10명 / 유관기관 4명 / 재단 4명 참석

6월
JUNE

- 충남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협업활동 운영 시작(~11월)
- 책임멘토제 운영 워크숍
* 5회, 47명 참석

7월
JULY

- 리더예술인 소모임 개최
* 1회, 10명 참석

8월
AUG

- 현장컨설팅 간담회 개최(당진3동주민자치회)
* 1회, 8명 참석
- 현장컨설팅 간담회 개최(한국민속극박물관)
* 1회, 15명 참석

9월
SEP

- 현장컨설팅 간담회 개최(금강문화관)
* 1회, 12명 참석
- 현장컨설팅 간담회 개최(헤리티지락)
* 1회, 15명 참석
- 현장컨설팅 간담회 개최(국립생태원)
* 1회, 17명 참석

10월
OCT

- 협업프로그램 진행 및 현장모니터링

11월
NOV

- 협업프로그램 진행 및 현장모니터링
- 2023 충남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성과공유회

12월
DEC

- 사업 종료 및 활동 아카이브

예술로 路 사례집

Ⅱ

2023 충남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 협업활동

(주)헤리티지락

국립생태원

수자원환경산업진흥

당진3동주민자치회

한국민속극박물관

(주)헤리티지락



리더예술인
김가을(미술)



참여예술인
강충만(무용)



참여예술인
조유진(무용)



참여예술인
구은서(음악)



참여예술인
장유정(공예)



“

인문학을 만나는 향교, 서원을
어떻게 활용할까?

”

전통을 살리고, 생활속 문화를 접목하여

전승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술인들의 가치와 정신을 '금산향교'라는 장소에서 펼쳐지길 지원하면서,

열심히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소통하는 장소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 (주)헤리티지락 ”



Heritage 樂은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문화유산을 즐기자는 의미로
문화를 느끼고, 즐기고, 함께하는 기업입니다.

“
있고, 잇다
”



전통문화 공간에서 '세시풍속 樂하다' 로 그동안 바쁜 현대인들에게 잊혀져가고 있는 세시풍속에 서로 배려
하며 상부상조의 정신, 예술성이 가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유림들이 제사를 지내던 공간
이 달라지고, 숨겨진 공간이 아닌 대중들과 함께하며 인문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누구나 즐기는 '문화사랑방'
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23년은 금산 지역의 새로운 공간에서 예술가들과 함께 여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업과 예술가들이 함께한 소중한 시간 모두 감사드립니다.”

리더예술인 김가을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기우였다는 것을 저희 팀을 통해 알게 되었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하며 서로가 다름을 알고, 이해함으로 보다 새롭고 멋진 작품들을 창조할 수 있었다는 것에 매우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예술인 구은서

“지역 기관과 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져 협업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고, 타 분야 예술인과의 협업 방법 또한 배울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참여예술인 장유정

“충남 예술로 사업을 통해 예술의 융합과 실험적 시도를 할 수 있어서 저의 예술적 역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늘 꾸어왔던 창작 작업과 복합예술에 대한 작은 꿈이 실현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또 다른 작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예술장르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협업해주신 리더, 참여 예술가 선생님들, 창작 작업을 실현 가능하게 도움 준 기관, 이러한 기회를 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충남문화관광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참여예술인 강충만

“장르별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경험하고 소통하면서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기관과의 협업 또한 처음 시도해보는 기획에 열정과 흥미가 있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기관 대표님과 예술가들의 인연에 감사하고 나의 예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준 예술로 사업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참여예술인 조유진



국립생태원



“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공예술프로젝트
”

페트병, 재활용캔, 페타이어 등의 재료를 사용한 작품을 제작하여

관람객에게 작품 소재에 대한 의문과 함께

생태보전에 대한 교육적 메시지 전달을 목표로

협업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
국립생태원
”

국립생태원은 자연환경의 연구와 보전 및
대국민 생태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생태 전문기관으로 생태연구와 더불어
국민들에게 생태가치 확산을 위한
전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립생태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
(연간 60만명)에게 문화예술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더불어 생태보전에 대한
교육적 메시지 전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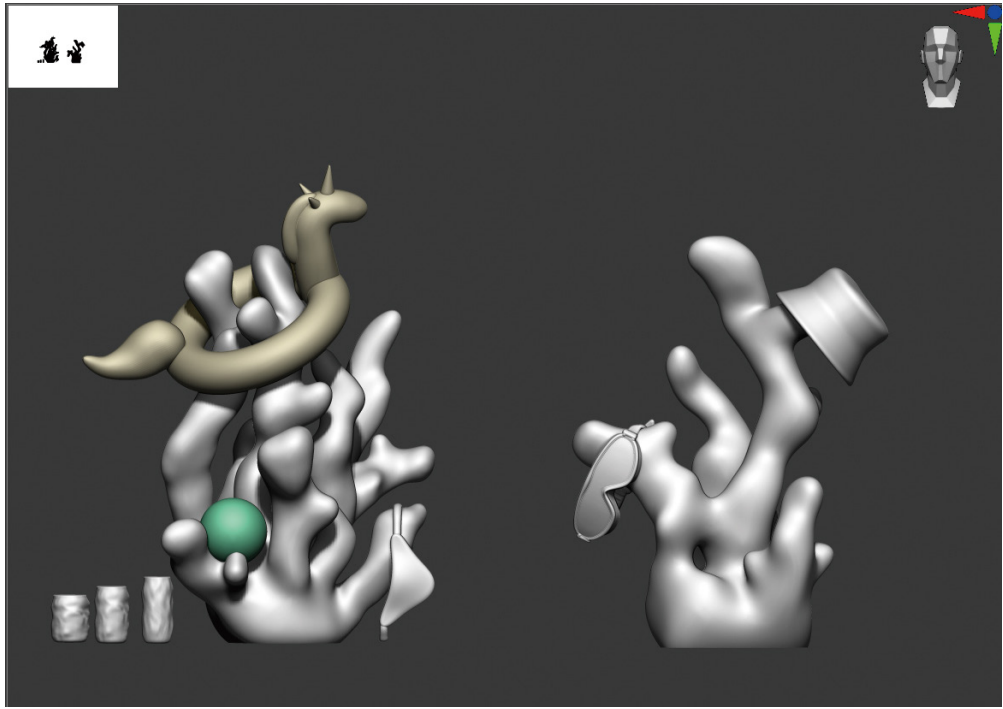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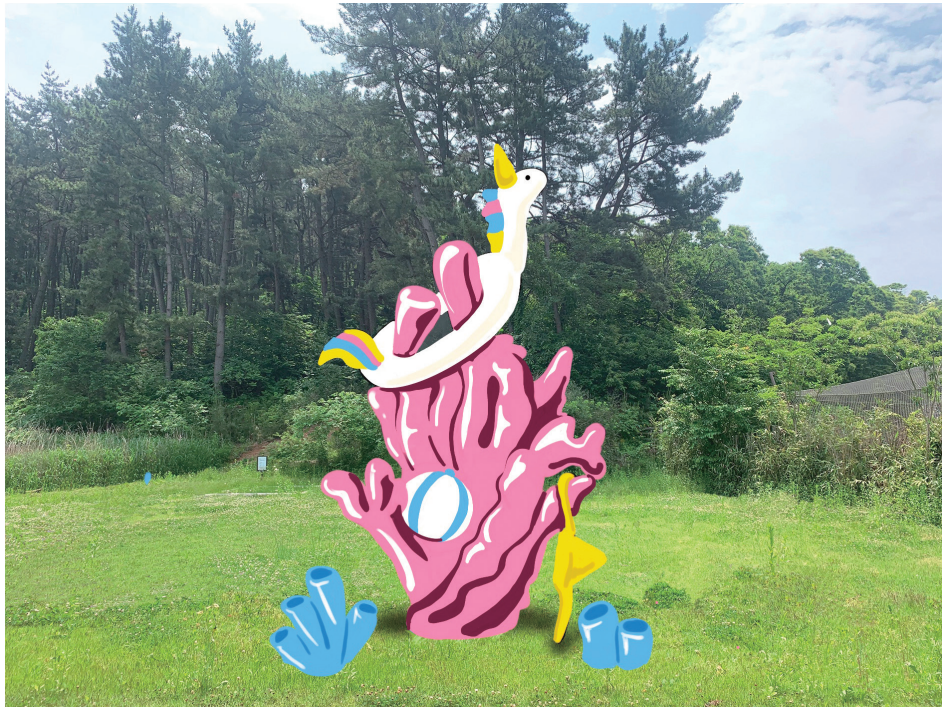
안전사고 문제로 방치된 야외 유휴공간에 생활 쓰레기 경각심을 일깨우는 조형물을
제작하기 위해 지역의 예술작가들과 고민했다. 해양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호초와 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인 쓰레기를 조형물로 제작설치하여
관람객에게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의문과 생태보전에 대한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
하였다.



2023. 11. 23. 오전 11:27:43
732 마서면
서천군
충청남도



2023. 11. 23. 오전 11:29:51
마서면
서천군
충청남도



아름다운 산호초 Beautiful coral reef

참여작가 : 김혜민, 김은주, 박재윤, 유현민, 유희만
 제작년도 : 2023년 6월~11월
 재료 : FRP에 무라탄도색
 크기 : 3000 X 3000 X 4000(h)mm

«아름다운 산호초»는 생태계 파괴와 인간의 환경 파괴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바다의 아름다운 생태계가 인간의 소비와 폐기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것을 강조하며, 우리의 소비 습관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은쓰레기가 자연에 미치는 파괴력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생태계 보존을 위해 연구하는 국립생태원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산호초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충남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예술로 사업에서 국립생태원과 예술가들이 협업하여 제작되었 작품입니다.

이동영역 : 충남문화재단 - 천안예술인복지재단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까? 또 리더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할까? 처음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국립생태원이 원하는 프로젝트가 명확했고 충분한 배려로 우리 또한 특별한 갈등 없이 협업을 통해 재밌고 순조롭게 진행했다. 기관과 서로 다른 분야의 작가들이 모여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배울 점도 참 많았다. 이번 참여를 통해 예술가의 가치를 인정받고 자존감 또한 향상되는 느낌이 들어 흐뭇하면서도 살짝 아쉬움이 남는 건 뭐지?

리더예술인 유희만

기관과 예술가들의 만남을 통해 예술이 좀더 우리의 삶에 가까워지고 지역사회 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경험이 되었다. 다른 지역,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과 서로 알아가며 소통하고 또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쉬웠던 점을 꼭 펼쳐보고 싶다.

참여예술인 김은주

처음 국립생태원에서 협업 활동을 진행할 때, 잘 마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팀원들과의 적절한 협의와 생태원의 적극적인 지지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로 사업이 작가로서의 성장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경제적 안정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예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다양하게 많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참여예술인 김혜린

두 번째로 참여한 예술로 사업이었지만 처음만큼 뜻깊은 사업이었고 앞으로 또 참여하게 된다면 참여하고 싶은 사업이었다. 다양한 예술인들의 다양한 정보와 교류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참여예술인 박재운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술로 사업의 깊은 애정과 열정을 보여 주신 국립생태원 기관 관계자 모든분들에게 깊은 감사함을 전합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예술인들과의 교류와 만남은 매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교감을 가지게 되는 가장 기초적이며 의미있는 행동들입니다. 몇 달간의 협업 활동을 통하여 예술인으로서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감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미래 좋은 영향과 울림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참여예술인 유현민

수자원환경산업진흥 (금강문화관)

리더예술인
이 안(미술)

참여예술인
허 훈(음악)

참여예술인
민순규(영화)

참여예술인
이하영(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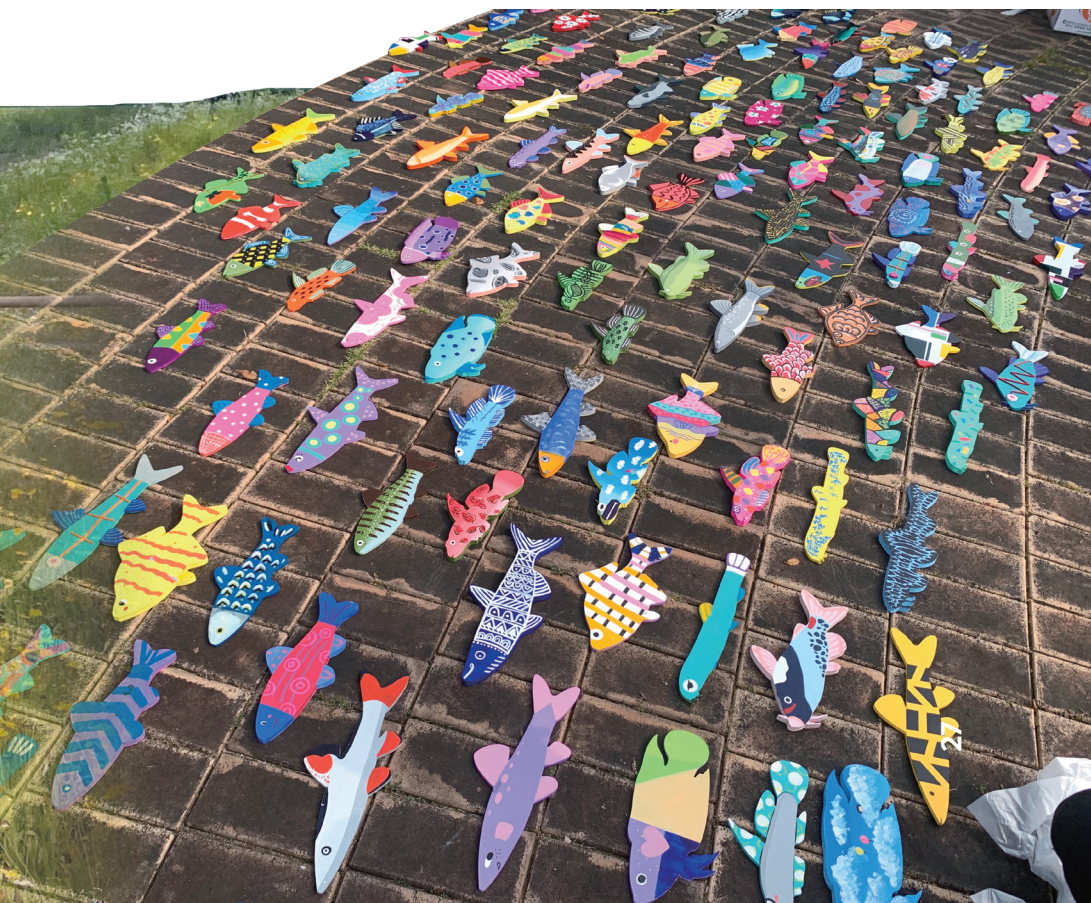
참여예술인
강수지(미술)

“

금강의 역사와 문화가
예술과 만난다면

”

‘금강’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함께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예술인들의 작품, 재능 등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 수자원환경산업진흥(금강문화관) ”



금강문화관은 2012년 5월에 개관한 부여 소재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친수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며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방향은 강과 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역문화생태계 공간조성, 자연·생태 중심의 강문화관 전문 콘텐츠 개발,
주민 참여형 문화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추진을 목표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 충남예술인파견 지원사업 | 예술로(鎔) 사례집



“
금강의 물고기 포토존
”

금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 11종을 나무로 제작하고,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채색하여 금강문화관 야외광장에

방문객이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개성이 담긴 포토존을 제작하였습니다.



“금강문화관 놀이터에서 나는 대장이 되어 개성 있는 색깔들과 만나 숨은 조각그림을 찾는 퍼즐놀이를 시작했다. 서로 마주하고 신나게 즐기며 각자의 빛깔을 낼 즈음 다양한 계층의 100여명의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하며 퍼즐은 완성이 되어 금강문화관에서 또 다른 놀이로 기다리고 있다. 예술로는 우리의 가치를 발현하는 예술놀이터였다.”

리더예술인 이 안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 참여 하는 협업! 다양한 사람과 상상, 다양한 능력이 하나가 되면 정말 재미있는 일이 만들어 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

참여예술인 허 훈

“늘 혼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던 나에게 예술로 협업 활동은 늘 즐겁고 충만한 시간이었다. 좋은 분들과 협업하며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었고 여러사람과 교류하며 배려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깨닫고 나의 좁은 식견을 크게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예술인 민순규

“예술로 협업 팀을 처음 만나던 날이 기억난다.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확인하고 활동이 진행 될 기관을 방문했다. 활동 지역도, 분야도 달랐지만 마음을 맞추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첫 예술로 사업 참여였음에도 활동이 진행될수록 어려움보다 즐거움이 더 컸다. 예술로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동료들에게 팀을 잘 만나는데 중요하다고, 억지로 하는 조별과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행히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팀을 만났다.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해주신 리더님, 아이디어를 보태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팀원분들께 감사하다. 덕분에 좋은 결과물만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 즐기며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활동 시작을 앞두고 걱정어린 말들을 해줬던 동료 작가들에게 “나는 이번 리더님이랑 팀원들이랑 예술로 평생하고 싶다”고 농담처럼 말했다. ‘예술로’ 보다 많은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어 기뻐던 6개월이었다. (12개월 하면 안되나요?)

참여예술인 강수지

“〈★공개!★ 예술로 성공 필승조합〉

예술로 하는 일에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팀, 성공에 가까웠다고 말하고 싶다. 기관이 마주한 어려움을 전에 없는 방식으로 바라보고, 마음을 맞춰가며 의미 있는 결과물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 정도면 성공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협업활동 주제가 각자의 작업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폭염주의보 알림에도 리서치를 위해 금강 주변을 함께 걷고 서천과 홍성, 부여를 오가며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 작업 속도, 머릿속 그림을 맞춰 나갔다. 그렇게 나온 결과물을 1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완성했고 금강문화관 외부에 설치된 작품은 더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쯤에서 예술로 성공 필승 조합 대공개! “예술인을 믿는 기관+참여 예술인들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게 만드는 리더+평소 내 작업에서 1%만 더 열심히 해보려는 참여예술인”(우리팀 이야기다)”

참여예술인 이하영

당진3동주민자치회



“

주민주도형 스스로돌봄, 서로돌봄

”

자기주도적 돌봄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제시로 개인의 돌봄 문제를 이웃과 함께 고민하고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주민들의 삶이 어우러질 때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문화예술인들의 직업 역량강화 및 사회적 가치가 함께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 당진3동 주민자치회 ”

충청남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당진시는
환경해권 중심도시로 산업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시민의 행복한 삶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당진3동주민자치회는
문화 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폴뿌리 지역에서 문화예술로
행복을 꿈꾸는 돌봄공동체 ”

지역민과 예술인들의 협업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취미나 여가활동으로써의
문화예술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융복합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민이 서로 소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예술이 빠질수 없음을 다시금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어떠한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해도 진심을 다했다면 언제나 감동의 순간은 온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세상 곳곳에, 마을 곳곳에 바위틈, 풀한포기 사이에도 우리 문화예술이 자리하길 바랍니다.”

리더예술인 이정민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면서 세상의 다양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수 있었고, 사고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따로 또 같이 존재하는 법을 배울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예술인 황지영

“다른 장르와의 협업이란 것에 새로운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생각되니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일을 헤쳐 나가는데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나를 다져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여예술인 황지영

“우리 팀은 이번 예술로 사업에서 당진3동 주민자치회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번 협업을 통해 당진3동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의 날 행사를 기획하였고, 어르신들을 위한 연극,합창 공연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준비 하며 지역 예술인들의 역량을 지역 사회의 가치로 확산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예술로 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가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창의적인 사회를 위한 무노하예술의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여예술인 정광석

“제 기준에서 작품을 보여줄 대상이 기존과는 많이 다른 곳에서의 활동이었습니다. 나의 작업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이곳에서 의미가 있을지를 깊이 고민해봤다는 점에서 이번 활동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참여예술인 전우진

회로망: 2023. 6. 1. 오후 7시 7분 42초 GMT+09:00
지방민: 2023. 6. 1. 오후 7시 7분 44초 GMT+09:00
36°54'30.617"N 126°38'43.856"E
789-13 원당동
당진시
충청남도



한국민속극박물관



리더예술인
최병덕(영화)



참여예술인
김지영(영화)



참여예술인
윤지민(음악)



참여예술인
이승용(음악)



참여예술인
차유림(연극)

“
전통문화자원의 쓰임이
공간, 지역, 장르를 넘어
‘탈’화하기를!
”

공주 한국민속극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재와 귀한 자료들이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예술 영역에서 창의적인 영감을 발휘하는데
쓰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공주 한국민속극박물관의 문화적 유물이
박물관 안에서만 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지역, 장르를 넘어 널리 ‘탈’화해서 확산되길 바랍니다.



“ 공주 한국민속극박물관 ”

공주 한국민속극박물관은 민속학자이자 1인극 배우인 심우성 님이 평생 수집한 민속자료들을 전시하고 각종 민속 공연, 출판 사업을 통해 우리 민속의 우수성을 알리고 체험활동을 통해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1996년 10월에 건립했습니다. 현재는 심하용 관장님이 박물관을 이어받아 출판, 체험활동, 교육, 연극축제 등의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

‘탈’을 모티프로 예술인 각자의 창작과 놀이,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체험 개발
- ‘탈과 함께’ 한 우리는 오늘도 ‘별탈없음!’ 프로젝트



”

공주 한국민속극박물관에 소장한 여러 귀한 문화 자원 중에서
‘탈’을 모티프로 참여 예술인들이 각자의 예술활동에서 <그들 각자의 ‘일탈’>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장르의 스토리로 창작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 활동을 하는 참여 예술인들이
공주, 천안, 홍성, 서울 등의 그들 각자의 생활&예술 영역에
각자의 방식으로 <‘탈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공주 한국민속극박물관 ‘안’ 활동에서 ‘밖’으로 확장해서
공주 경천초등학교와 연계하는 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 체험활동인
<‘별탈없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본 사업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향후 공주 한국민속극박물관의
연계 행사에 반영하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선 각자의 생활 영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타예술인과의 협업활동을 통해 그네들의 삶과 예술경험이 불안했던 내 삶과 예술을 몇 번이나 격려하고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장르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도 창의적으로 지역 기관과의 예술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였던 ‘나’를 타예술인들과는 ‘동지’로, 지역기관과는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주신 재단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더예술인 최병덕

“본 사업에 참여하면서 많은 부분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번째로는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어 다른예술활동을 하는데 자유로웠고 좋은동료들을 만날 수 있어 삶에 큰 힘이된 것이 마치 선물같았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사람들 활동을 통해 자극받고 다양하게 아이템 개발에 도움이 되어 좋았습니다. 많은 예술가에게 본 사업이 계속 활발하게 유지되길 바랍니다. 더없이 좋은시간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예술활동으로 나은 세상에 앞장서는 예술인이 되길 희망합니다!”

참여예술인 김지영

“처음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새로운 예술인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 반 예술가 로써 새로운 방향과 영감을 얻을 수 있을거란 기대 반 으로 시작 하였습니다. 걱정 하던 것 보다 너무 잘 소통 되어 앞으로를 기약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대 보다 더 큰 방향

과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보다는 진행 되는 과정에서 많은 소통을 하고 서로 협업 할 기회가 많아 지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참여 하고 싶습니다.”

참여예술인 윤지민

“저는 이번 2023 예술로 사업에 참여예술인으로 함께한 성악가 이승용입니다. 먼저 이번 예술로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예술적 시각과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각 분야의 예술가들이 참여예술인과 리더예술인으로 함께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의 음악적 영역 외에 다양한 예술을 경험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지역의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예술로 사업 외에도 개인적인 작품활동에서의 결과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예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자 분야의 특화된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면서 저의 향후 예술활동의 방향성에도 많은 자극과 방향성을 제시받았습니다. 또한 제가 기관장님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계승하시는 모습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예술로 사업을 통해서 예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진정한 자세와 가치 그리고 인성적 발전을 이룬 점에서 저와 같이 다른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로>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과 함께 각자 예술가로의 삶에 더욱 의미있고 풍성한 가치를 발견하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 관련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리더예술인 이승용

“내가 몸 담고 있는 공연예술분야와는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영감을 얻어가는 여정이 흥미로웠다. 또한 여기에서 나온 또 다른 아이디어를 활용,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자발성이 ‘툭툭’ 튀어나오는 나를 발견하는 지점도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아직은 체계를 더 다듬어야하는 사업의 외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취지와 과정은 만족스러웠고, 만나게 된 예술가들과의 소중한 인연의 시작이 된 본 사업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것 같다.”

리더예술인 차유림

2023 충남예술인파견 지원사업

예술로(路) 사례집

발행처	(재)충남문화관광재단
기획/편집	예술인복지팀
전화	041-630-2932
홈페이지	www.cacf.or.kr
인쇄/디자인	내포문화사(041-356-5589)

이 책의 저작권은 상기기관(충남문화관광재단)에 있으며 무단 전재·배포를 금합니다.